

문학원론

新수능 국어 영역 '시'론 1st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 소개

<https://open.kakao.com/o/gf8GOnYb>

추가자료/수업문의/신규 수강생 안내 : 연구실 010-8388-5403

인호 배T

InnovaTe

Before Anyone Else KSAT Teacher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국어과 정교사 2급 자격)

강남 오르비 학원, 대치명인 학원

수만휘/오르비 칼럼 멘토

2020 6평 전후 대치/강남 수강생 수 1000% 향상

2020 6평 이후 개강반 100% 마감(6.7.8.9연속)

2020 수강생 동생 수강률 98%

수험생 시절 상위 0.01%~0.3%¹⁾

문이과 서울대/국립대 주최 경시대회입상(지구과학경시/지리올림피아드)²⁾

2005 군 전역 후 INOS 창업. 소셜커머스³⁾

2008 이노에듀 창업⁴⁾

2009 공부법 강의 1위⁵⁾

2010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2010 kt에듀 전과목 강의 1위⁶⁾

2011 비타에듀 언어영역 강의 1위⁷⁾

2011 kt그룹 계열사 최연소 임원⁸⁾

2011~2013 전국 최대 독학 재수학원 원장⁹⁾

2011~2013 전국 최다 지점 소수정예재수학원 원장¹⁰⁾

2014 스카이에듀 모회사 ST&컴퍼니 고문 제의

2014~2018 대치/강남 입시 코디¹¹⁾

2017~2018 경상남도 여민동락 교육 사업자 선정¹²⁾

2018 강사 발굴 교육기관 국어과 전임 교수¹³⁾

V사 S사 M사 인강 강사 영입 제의¹⁴⁾

동아일보 등 다수 신문사 학습섹션 칼럼리스트 요청¹⁵⁾

삼성 러닝 허브 강연 요청 및 다수의 TV 출연 요청

*공부법 강연 : 용인시청, 울산 북구청, 안산시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언론보도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등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SBS 이성미의 라디오 쇼 출연

*SBS 김소원의 라디오 전망대 출연

*Mnet 김수로의 명문대 특별반 엠블랙 멘토 출연

*SBS 스타킹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삼성 스마트 러닝 허브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KBS 아침 마당 섭외 요청

*훈장마을 성공강사 강연회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1) *현역~재수 시절. <https://vatnom.blog.me/221566245704> (링크 참조)

2)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서울대/국립대의 특경 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경시대회가 단 1회 있었음

3) *스타일난다, 임블리등과 비슷한 시기 창업. 비슷한 성장속도. 위메프,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초창기 BM

4) *에듀테크 기업

5) *공신 온라인 나눔저수 1위. 게시판 점유율 70%

6) *kt에듀 입성 1년 기준. 전체 수강생 수 80% 매출 70% 점유

7) *kt비타에듀 국어 강사 입성 1개월 뒤 수강생 수, 매출 기준

8) *2011~2013년 kt에듀 콘텐츠사업부 이사. kt에듀에 이노에듀 M&A

9) *kt에듀 학습센터. 6개월 간 전국 25개 지점 개원.

10) *대치/강남/서초/사당/신촌/목동/노원 이노에듀.

11) *성적 급등 사례, SKY 및 의치한 합격자 다수,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전국 차석 다수 배출

*대기업 CEO 자녀, 고위공무원 자녀, 인강 1타 강사 자녀 등

12) *온라인 이노에듀.

13) *스카이에듀 모회사 커넥츠, 스카이에듀와 삼자루 선생님이 개설한 에플사프로 국어과 교수

14) *현 메이저 인강 4사 중 3사(인수 합병 포함) 영입 제의

15) *동아일보, 내일신문, 학원 전문 신문 앤써, 조선에듀, 국민일보 등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https://open.kakao.com/o/gf8GO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비문학은 머리(사실적 이해)로, 문학은 머리와 가슴(감상적 이해)으로 읽어라.

엄밀하게는 화법, 작문, 문법,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분류하고, 머리로 읽으라는 것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하라는 의미이며, 가슴으로 읽으라는 것은 **감상적 이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독해는 **상향식 독서와 하향식 독서**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많은 강사들이 쓰는 이러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으로 수업을 도입하는 것은 인강 최초 제가 2010년 진행했었고, 그래서 최단기간 최연소 수강생 숫자와 매출 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 보다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하려합니다.

배인호의 수능국어, 실전적 기술분석 '시'

시의 주제파악은 사실적 독해 => 감상적 독해
즉, 있는 그대로 읽고, 정서를 파악한다.
즉, 너러면 (객관적으로) 이 시를 왜 썼을지 파악한다.

시의 주제는 정서다.

문학을 4장으로 나누면 서정, 서사, 극, 교술 4장르 분류를 합니다. 서정, 즉 정서 전달이 목적인 문학이 바로 '시' 입니다. 그렇다면 시를 읽는 것은 철저하게 '화자의 정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서를 찾고 시를 감상하기 위해** 시를 읽고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에 급급해 **정보를 찾기 위해** 시를 읽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풀이에 급급해
정서가 아닌 정보 찾기 읽기를 합니다.

아래에 밑줄 친 내용들을 시에서 하나 하나 확인하느라 시선이동은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다) 작품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품마다 5번씩 최대 15번의 시선이동이 생겨나구요. **과연 출제교수님들은 이렇게 정보를 찾는, 눈알굴리기 운동을 잘 하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려고 했을까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시의 전반에서 대구표현은 나타나지만, 회고적 정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구는 구의 대응을 말하며,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회고적 정서는 회상을 하며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나)시에서 물과 불을 대립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립적 이미지는 시어의 의미가 대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절의 변화는 특정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와 다른 특정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가 나열되어 표현된다.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가)시의 산이여!, (나)시의 우리, 등으로 청자는 명시되어 있고, (가)시에서는 기다림으로 바람 표출을, (나)시에서는 만나자 등의 표현으로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청자는 명시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작품 다 청자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바람은 이루고자 하는 소망, 성취하고자 하는 지위, 청유, 명령등의 표현으로 명시화 된다.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모두 비유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가)는 과거의 체험이 없다.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대유, 의인, 활유법 등이 있다.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특정 어구가 점층적으로 나열 된 것은 (가)이다.

특정 어구는 '산'과 같이 비슷하거나, 같은 어구를 말하며, 반복되면 점층을 말한다.

긴박감은 갈등의 상태가 고조될 때 긴박감이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좋은 해설이다! 라고 평가하는 해설은 위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설은 절대로 좋은 해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제교수님들은,

1. 정보 찾기를 잘하는, 눈알굴리기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2. 국어영역 문학의 출제를 통해, 학교에서 문학교과 학습으로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감상적 사고/독해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풀어봅시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詩(시)와는 反逆(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山頂(산정)에 서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저 낀 잡초 우에
잡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방 두 칸과 마루 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
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
스러울 수가 있을까]

詩(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어
자기의 裸體(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시
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
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逆(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작품 생략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
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
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
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
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
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
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
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
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
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
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
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
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
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
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017학년도 수능 풀어봅시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시)**와는 **反逆(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상 (시인) 부정적 현실**

먼 **山頂(산정)**에 서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납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잡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방 두 칸과 마루 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
 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썩
 스러울 수가 있을까]**

詩(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어
 자기의 **裸體(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시
 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
 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逆(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대립 갈등 유지**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작품 생략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촉발부터**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적 현실 인식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가겠군.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詩(시)와는 反逆(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山頂(산정)에 서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저 낯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방 두 칸과 마루 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
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쪽스러울 수
가 있을까]

詩(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裸體(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시인)처럼 비
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
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逆(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작품 생략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우리가 언어활동, 즉,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
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의사소통의 내용이자 목적
이니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개념어, 개념, 서술방식
등에 현혹되어 주제를 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서가 촉발되는 1연에 집중합니다. 특징
적인 것은 1연 부터 주제가 나옵니다.** 나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소재 : 나, 서술 : 처지

주제 - 나의 처지 : 시와 반역된 생활.

이것을 가슴으로 읽읍시다. 왜 이런 말을 시인은 썼을까요?

**시는 바람/이상 인데,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기 때
문**이겠죠.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상적 독해 역량입니다.

주옥 흩어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연도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서가 집약되는** 마지막 연을 살펴봅시다. 여전히 시를 반역했고, 꿈
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는 바람/이상,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음** 이 여전히 일관되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
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
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
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
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정답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발췌독**을 하며 근거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정확도를 감소**시키기도 할 겁니다.

집중합시다. 아까 특징이 뭐였죠? 네 시상 전개방식의 특징은 **1연부
터 주제가 언급** 된 점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
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
하고 있다.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나 특징에 집중하니 바
로 정답이 고민없이 골라집니다.

이어지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베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아가는 정서가 촉발되는 1연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서가 집약되는** 마지막 연입니다. 여전히 시를 반역했고, 꿈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는 바람/이상,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음** 이 여전히 **일관되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갈등이 해소되었나요? 아니면 갈등은 여전히가요? 네. **갈등은 여전히**합니다. 그것이 주제이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 있게 표현된, 시적 화자의 경서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수능 출제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교과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한 올바른 교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바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요. 결국 이런 관심과 바람이 문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시를 읽을 때, 내용, 표현, 형식을 유기적으로, 맥락을 바탕으로 읽게 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길어야 7분 안에 이 정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네 이렇게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도록 출제합니다.

커리큘럼 상 2018학년도 수능은 2019학년도 대비 실전 연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시문제로는 다루지 않고, 커리큘럼이 끝날 때 쯤 실전 연습 풀이 시점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기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며 연습해, 더 이상 시에서 틀리거나, 혼란을 겪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참고로...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앞으로 풀어볼 문제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어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주제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특히 집중합니다.

주제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과외나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생각이 많을수록 오답으로 갑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디에 밑줄이 가야하나요?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른 선지들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데,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제할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 과 같이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써서 만든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밑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밑줄 친 선지가 모두
정답입니다.**

물론 예외¹⁶⁾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의 70~80%는 단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답이 되었습니다.¹⁷⁾ 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에서 위와 같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만큼 출제자들은,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출제할 내용이 주제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으니 더더욱 이런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지를 고르기만 해도 정답률은 7~80%입니다.)

특히, 요즘의 비문학, 독서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히 때문에, 이렇게 까지 문제가 쉽게 풀릴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 독서 강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풀립니다. 심지어 그런 문항들이 많습니다.

16) 예외인 문항. <2015학년도 9월 A형 31번 ㉔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 하고 있다.>, <2015학년도 6월 B형 31번 ㉔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B형 32번 ㉔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17) 참고할 문항. <2014학년도 A형 수능 31번 3번 선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형기 낙화>, <2014학년도 A형 9월 31번 1번 선지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https://open.kakao.com/o/gf8GO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풀어봅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명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풀어봅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여자 관찰

상황(화자)

나도 모를 이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공감 X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여자와 동일시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슬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뗏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퍼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반복 변주

동질성

- 박목월, 『나무』 -

문학 정답 스펙트럼#논리 =>가장 적절



https://open.kakao.com/o/gf8G0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뜰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매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쩔뿐 과격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퍼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주제 = 핵심소재 + 서술

정서 = (객관적으로 촉발된) 감정

첫 시작은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리고, ~누워, **젊은 여자가**. 즉 주어진 젊은 여자가 묘사의 대상이자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1연은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묘사로 객관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정서는 무엇인가요? 아마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으니, **외로움** 같습니다.

자 머리로 읽었으니 이제는 가슴으로 읽어봅시다. 여자에게서 나오 묘사의 대상이 바뀝니다.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즉, **특정적으로 시적화하는 자신의 아픔을 여자의 아픔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도~** 라면서, **그 여자와, 나를 동일시하며,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며** 정서는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 연은 **늙은 나무**를 만나며 시작합니다. **묵중**하게 서 있군요.

두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추위** 보입니다.

세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도 **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놀랍고, 내 안에 뿌리를 퍼고 있습니다.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들이고, **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상호텍스트성에 따라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작품을 출제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묘사로 시작한 뒤 동일시**, 하게 되는 것이 공통 주제이자 시상 전개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인물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목월의 시는 **반복/변주**되며 **나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2.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 와 어!는 다르다... 어는 오답이다.

- ① 아 ② 아아 ③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④ 아! ⑤ 어 정답은?

(설마 틀린 학생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여자 즉,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지, **사물**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하면, (가)시는 **1연에 여자를 묘사하고, 2연에 여자를 나와 동일시하며, 3연에서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각 연에 집약된 정서/주제 였습니다.

(나)시의 1연은 **높은 나무가 묵중하고**, 두 번째 연은 **추워** 보이고, 세 번째 연에서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변주와 심화**가 정답입니다.

역시 주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련된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2017학년도 6월 풀어봅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었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무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었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https://open.kakao.com/o/gf8G0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때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퓌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젓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겨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2017학년도 6월 풀어봅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었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었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테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의 속성(포용력)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축 하매, 부정적 현실 인식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긍정적 미래 전망

육식 X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평화, 화합, 긍정적 전망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

②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③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퓌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하게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통념 부정, 그러나 여기는 긍정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통념 부정, 여기는 긍정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젓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성찰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주제:는 긍정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표현을 통해 회고적인?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물결)**
물로 만나자 **필요시 발체독**
- ④ (가)와 (다)는 비유적?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접층적으로 나열하여?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겨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부정적 현실**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긍정적 전망**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긍정적 전망**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주제** **자연친화** **물아일체**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물:+
불:-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④는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었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등등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었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무 다랫덩쿨 바위 엉서리에 었혔고, 살살이 딱갈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팻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축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찔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원(香峴)』 -

1연.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 넘어 큰 산, 그 넘었 산, 안보여서 구름을 탑니다. 즉 뭔가 보고 싶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뭔가 보고 싶는데 안보이면 어떤가요? 바람이 실현 된 상황은 아니겠죠?

2연.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이군요. ,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산은 이것 저것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3연. 산이 침묵하고 있네요.

4연. 산이 침묵을 깨고 화염에 의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5연. 시상이 집약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왜 기다리나요? 뭔가 바람이 있으니,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뛰어 논답니다. 즉, 화합을 말하겠지요.

주제를 정리합니다. 핵심 소재 : 산, 서술 : 변화를 기다림.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증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주제에 집중합니다.

바로 보이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주제인 화자의 바람 표출. 답 3번이군요.

오답을 잠시 쳐내보면,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바람=기다림, 미래에 대한 서술입니다. 회고나 과거로 가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수능은 거의 항상 2작품 이상을 문학에 세트 구성을 하여 출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텍스트적 감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호텍스트 성이라 함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연결해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 같이 주어져 읽게 되는, 혹은 이전에 읽었던 작품/텍스트와 관련지어 지식을 구성하고, 감상의 폭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상호텍스트적 읽기라 하고, 문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트 문항은 공통점이 매우 명확한 문제들입니다. 바꿔말하면 한 작품만 제대로 감상해도 문제 접근에 큰 지장이 없어집니다. 위와 같이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2행.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물이 되어 만나면 가문 어느 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으랴?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 물이 되어 만나야 겠구나. = 바람 = 기대 = 기다림의 상황이 되겠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려 한다.

중간. 시상/정서가 전환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그러나' 집중해야 하는 표지.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지금은 불로 만나니, 바람이 있을 상황은 아니고, 물 = 긍정, 불 = 부정적 대상으로 읽을 수 있겠군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마지막. 시상/정서가 집약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불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울 때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부정적인 불이 가고, 긍정적인 물이 되어서,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바라고 있구나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인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불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④ (가)의 '내 마음이' '동동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겨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④ (가)의 '내 마음이' '동동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 4번선지 바꾸려 한다 ≠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4번선지 자연친화 ≠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불 : 부정

물 : 긍정.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부정적 존재를 소멸시키고,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다)

③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골짜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감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 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 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닌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자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주제를 정리합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는 마지막에 집약됩니다. (수필도 마찬가지)

주제 : 눈은 명상적이다. 혼자있게 되면, 고요하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 긍정적이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답이 보이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문항은 작품과는 크게 상관없는 표현하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세트 구성상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면, 선경 후정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묘사와, 그에 따른 감각/정서 표출이 있는 선지는 5번 밖에 없습니다.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 =>선경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 =>후정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정리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꼭 기억바랍니다.

추가로...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기준이 명확하다〉

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이 내용도 기억해 활용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014~2020학년도 기출에 적용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험(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턱턱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A]

[B]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리지도록 무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왓새」-

[C]

[D]

[E]

*왓새:왜가리의 별명.

*동편제: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巖)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巖)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 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겅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게 먼지 낀 의복,

https://open.kakao.com/o/gf8G0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었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김기림, 「주울온천행」-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학생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학생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학생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구,유사통사구조 반복

(가)

주제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부정적 미래 전망

삼천리 금수강산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대조

자연 하나 VS 우리 분열, 부정적 현실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폭사의 허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가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의문

-박봉우, 「휴전선」-

제목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속성) 분위기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생각남(환기)

오늘은, '악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털털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C]

소리꾼 모습 묘사

https://open.kakao.com/o/gf8G0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상상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악새들 악새 나는 모습 묘사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소리꾼,악새연결

-배한봉, 「우포늪 악새」-

*악새:왜가리의 별명.

*동편제: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巖)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巖)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등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 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질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 조각. 묘사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긍정적

부정적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비판

속세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게 먼지 낀 의복,

속세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역사
전통
과거

소재
인물

왜:아름다운
이미지 연결

30

국어 영역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묘사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로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김기림, 「주울온천행」-

가: 나: 소리꾼, 우포늪 다: 깨달음,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 나, 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 가, 나?**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 가, 나?**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소리꾼 약새**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 끝 소리꾼**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믿음 없음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대조**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자연**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속세**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긍정적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 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시상**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장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정확히
소리꾼-우포 늪 왁새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주제

학생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학생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주제**.....㉡

학생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주제**.....㉢

학생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주제**.....㉣

학생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반복되는 소재.

산. 산. 산...

동시에 산과 얼굴은 대조적입니다.

*제가 개념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 말라 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핵심 소재와 관련된

주제 전개방식은

너무나 튀기 때문에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산에는 없는 수식어

‘믿음이 없는’

당연히, 가치판단. 주제 정서. 잡히는 정보가치 높은 부분

이미 보입니다.

자연과 달리

얼굴은 믿음이 없구나. 주제. 정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어두움. 화산. 믿음이 없는 부정적 인식

반면, 꽃? 보통은 긍정인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https://open.kakao.com/o/gf8GO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상상

= 공감

여러분이라면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휴전선에 가서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고,

그것이 안타까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처리하면 충분!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는가.

2연 역시 흐름이 비슷. 구조로 보겠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휴전선
전형적 주제. #124

구조	자연 - 긍정	인간 - 부정
1연 핵심소재	산과 산 마주	얼굴과 얼굴 마주
1연 주제정서		믿음이 없음 향시 어두움 화산
2연 주제정서	아름다운 풍토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 하늘은 하나	서로 응시. 쌀쌀. 불안한 얼굴

의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조도가 당장의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거예요!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3연 역시 흐름이 비슷. 구조로 보겠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휴전선.
전형적 주제.

구조	자연 - 긍정	인간 - 부정
1연 핵심소재	산과 산 마주	얼굴과 얼굴 마주
1연 주제정서		믿음이 없음 항시 어두움 화산
2연 주제정서	아름다운 풍토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 하늘은 하나	서로 응시. 쌀쌀. 불안한 얼굴
3연 주제정서		유혈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정맥 끊어진 채 야위다

반복적으로 주제-정서 형성 하는 것이 보이실거예요!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어.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열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휴전선
전형적 주제.

구조	자연 - 긍정	인간 - 부정
1연 핵심소재	산과 산 마주	얼굴과 얼굴 마주
1연 주제정서		믿음이 없음 항시 어두움 화산
2연 주제정서	아름다운 풍토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 하늘은 하나	서로 응시. 쌀쌀. 불안한 얼굴
3연 주제정서		유혈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정맥 끊어진 채 야위다
4연 주제정서		독사의 혀 징그러운 바람 모진 겨우 살이 아무런 죄 없이
5연 주제정서	1연 반복. 수미상관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저라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제 상상인데,

2행의 위의 내용 까지는 사실이고

그 다음 부터는 작가의 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됩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여기까지, 흰 두루마기 사내에 대한 정보인데,
 문학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 = 성격 제시
 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내 : 득음 못 함. 별볼일 없는 삶. 하지만 절창은 찾음
 = 즉,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은 있음(문학적 관습)

오늘은, 약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아마 우포늪에 온 화자가, 약새 소리를 듣고,
 우항산 솔밭과, 꽃불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보니 자신이 아름답게 생각했었던 여러 이미지 중
 소리꾼 사내와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했다
 그리고 다시 사내 생각.
 근본도 모르는, 험험 단신...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 모습이 보이쥬?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사내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하며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사실 누군가가 그것을 평생 찾았는지,
 여기 있을지는 모르죠.
 아마 작가의 상상을 덧붙였겠죠?
 아름다운 우포늪, 약새소리, 알고 있던 그 소리꾼.
 아마도 이곳의 아름다운 소리 = 소리꾼의 소리
 아니었을까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약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부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약새」-

*약새:왜가리의 별명.

*동편제:판소리의 한 유파.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우포늪 약새.

핵심소재	정서. 문학적 관습.	
소리꾼	득음 못 함. 시골장. 절창 찾음	
[A] 우포늪 약새	눈부신 봄빛. 꽃불	
[B] 소리꾼	텅텅. 험험단신. 슬픔.	
[C] 소리꾼	고수. 평생 소리 찾음	
[D] 우포늪 약새		
[E] 우포늪 약새 소리꾼 연결	약새 소리 = 소리꾼 연결 꽃잔치 부르익힌다	

우포늪의 아름다움

그리고 약새 소리

그 소리가 시인이 알고 있던 그 소리꾼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시를 쓴 것 같जू?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悤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소재인 오심암. 세심암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절경

자연 예찬 가치판단. 주제 보입니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홀리고 간 형겁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옅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자연 아름다운 예찬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비판적이죠?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자연 아름다운 예찬

인간의 모습은 비판적.

딱 주제 보이네요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보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김기림, 「주을운천행」-

다시 돌아오고 싶다 라면서 끝!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바로 주제 정답

가) 휴전선 : 자연과 인간 비교.

배경 : 휴전선

주제 : 인간의 부정적 현실과 자연의 긍정적 현실 대조

나) 우포늪 약새

배경 : 우포늪

주제 : 우포늪 아름다움 - 약새 소리 - 소리꾼 이미지 연결

다)

배경 : 오심

자연 아름답

vs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제 + 전개방식의 공통점. 역시 정답!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발 이런 표현법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닙니다.

주제. 정서 : 안타까움.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임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정서 : 약새소리. 우포늪. 생동감 되겠쇼!

- ③(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부분 잘 모르겠네요. 주제도 안 보이고.

역시 정답 확률 높고. 이런 것을 발췌독 갑니다.

개념 다 확인 말고 역시 주제 전개방식 봅시다.

시간의 흐름? 아니죠! 공간 배경

시선이동? 아니죠! 생각 흐름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동일시구 반복... 수미상관 있었는데 불안하면 나중에 발췌독

인물 - 소리꾼 주제 맞췄.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가)자연과 인간에 대한 대비를 바탕으로한 주제 정서

나)우포늪 약새와 소리꾼 연결 주제 정서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 주제 맞고

다) 자연 예찬인데? 주제 L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가) 자연과 인간 대비 주제 맞고

다) 자연 아름다움 주제 맞췄

역시 바로 정답!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삶의 의지 없습니다. 분단 현실.

절망감 없습니다. 자연 예찬. 돌아오겠음.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
을(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징그러운 바람. 부정적이니 모진. 가능하죠.

물론 자세하게 '미래'라는 정보까지 잡는 것을 요구할 수
도 있지만, 주제 외의 세부정보, 물을 확률 낮으니 일단
스킵.

미친바람-인간 부정현실인데?

소중한 존재?

당연히 아니죠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
를(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순응? 그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 현실! 주제

바위? 자연인데? 왜 부정적?

확인되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제 집중하십시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
로 떠올리고 있다.

우리가 예상한 그 내용 그대로 주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
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
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
고자 했다.

우리가 읽은 정보 + 자연의 생명력. 연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
다.

더 나아간 주제까지 확인되죠?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우포늪 왁새.

핵심소재	정서. 문학적 관습.	
소리꾼	득음 못 함. 시골장. 절창 찾음	
[A] 우포늪 왁새	눈부신 봄빛. 꽃불	
[B] 소리꾼	텅텅. 헐헐단신. 슬픔.	
[C] 소리꾼	고수. 평생 소리 찾음	
[D] 우포늪 왁새		
[E] 우포늪 왁새 소리꾼 연결	왁새 소리 = 소리꾼 연결 꽃잔치 무르익힌다	

이런 문제는 물론 돌아가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주제로 집중할게요.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주제 정확하죠?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
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주제. 소리꾼의 이미지. 성격 제시.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소리꾼 = 우포늪 연결. 주제. 맞네요!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역시 보기 바탕. 주제 의식. 연결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전형적 주제에 집중하면 매우 편합니다.

왁새와 소리꾼 대비를 통한 사실적?

의도가 보이는데

1. 왁새와 소리꾼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으로 연결했고

2. 사실적? 상상인데?

이런 출제 의도 파악이 핵심이에요.

문제는 이런 평가원의 '화법'을 이해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

위의 선지들도 자칫 우리의 관점/filter로 접근하게 되면

간단히 판단될 어휘들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다) 작품

다)

배경 : 오심

주제 : 자연 아름다움

vs

주제 :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결국 수필의 정의, 주제에 초점 둥니다.

수필의 주제는? 깨달음이다!

학생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표현법. 자연 묘사. 주제 관련

학생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주제 : 인간 비판

학생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주제 : 자연 예찬

학생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제 : 자연 예찬

주제 : 인간 비판인데... 자연이 티끌?

바로 정답이죠

학생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제 : 인간 비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평(生平)에 원(恨)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해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해야 어공불급(如恐不及)* 흐느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물까 해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물사 즐기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하니 오라 말라 흐노랴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훈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찌리
 <제17수>

-권호문, 「한거십팔곡」-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어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위랑/드래랑/떡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머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호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오'를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교적 가치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 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자기수양**
 마음에 흐고져 **하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흐노라 <제1수>
과거 시험 준비

방향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공부**
 부급동남(負笈東南)* **하야** 어공불급(如恐不及)* **하느**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물까 하이라** <제2수>
비관적 태도

자연친화 **총** **방향**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자연친화**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세,관직 **자연친화, 방향**

출(出)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물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청렴,안분지족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상황**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하**니 오라 말라 흐느뇨
 <제16수>
방향 X

자연 **관직**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하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권호문, 「한거십팔곡」-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건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어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감.

(나) **시공간배경**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말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음,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외형적 내재율**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기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고전: 외형들

“멀위랑/드래랑/떡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표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공부 임금,관직 0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자연 속세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쫓겨나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유교적 가치 ??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는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보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주제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고전,외형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고전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외형들,내재물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주제
- ⑤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비평문이 있는 지문.

비평문 지문자체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 하지만, 평가원이 이 비평문을 출제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평 교육 (Criticism education)

출제의도

1. 단순한 보기 제시보다 강력한 객관적 문학 작품 감상 능력
2. 2015개정 전후하여 논문 폭발
3. 신비평(新批評 new criticism)적 관점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과 한계. 신비평을 경계하는 관점이 평가원 및 국어교육학계에서의 양보할 수 없는 주류적 기준.
4. 따라서, 대단한 것은 없음
5. 고3 수준 수능에서는 문학 개념어 정도 읽어내는 차원이면 충분함

접근법

1. 철저하게 문학 개념어 파악에 집중
2. 때때로 독서 구조 분석이 도움되는 경우 있으나 20% 미만. 문학 개념어 파악에 집중
3. 문학 작품 해석은 절대적 기준이 됨.
4. 문학 작품 해석 내용 바탕 작품 해석 필수

비평문 분석합니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원소린지 이해 저도 안 됩니다.

개념 잡으세요.

아. ‘리듬!’ 운율이야기구나!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운율의 요소.

음의 보폭? 음보!

반복. 글자수 반복. 이런거 운율 요소라고 배우셨죠?

<https://open.kakao.com/o/gf8GO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결국 운율 이야기구나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어렵쥬?

규범?

원소린지 이해 저도 안 됩니다.

개념 잡으세요.

아. ‘리듬!’ 운율 이야기구나!

고전 : 외형률

현대시 : 내재율

제가 수업시간에 수도 없이 다루었던 바로 그 내용!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윗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옥의 3음보, “동짓달/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결국

고전 외형률 - 김소월 시

현대시 내재율 - 이상의 시

끝!

별 정보 없네유.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아

마음에 호고져 호야 십재황황(十載惶惶)*호노라 <제1수>

생평... 평생

원하다? 뭘? 충효?

아!

전형적인 주제

유교적 가치관!

마음에 하는데... 십재황황? 주석 가죠.

급하다. 10년 걸린다?

왜?

말했었죠?

전형적인 주제

유교적 가치관!

그 당시의 충 : 관직에 나가는 것

따라서, 공부 = 자기 수양도 있지만

공부 = 과거 수단 = 관직 나가서 = 충

이것도 되니.

과거 급제 못해서 10년 헤메 었다는 이야기जू?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호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호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계교 = 뭘을 견주었을까요?

충과 효를 견주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공명 = 출세.

https://open.kakao.com/o/gf8GO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공명 3 (功名)

명사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따라서, 출세 = 관직에 나감인데 그게 늦었고

강호(江湖)에 놀자 호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호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은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노라 <제4수>

강호 = 자연

성주 = 임금

따라서 자연친화와 관직에 나감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죠

출(出)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물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오리라

<제8수>

출. 출세. 관직에 나가면 치군택민 하고

처. 아마 자연에 은거하면. 조월경운. 달. 구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서 자연친화 같죠?

명철군자. 이걸 즐기 충분한데.

굳이 부귀? 근데 그걸 위기라는 것을 보면 부정적 인식.

결국, 안빈낙도 하며, 자연에 있겠다!

행장유도(行藏有道)*호니 버리면 구태 구호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명듣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호니 오라 말라 호노라

<제16수>

따라서, 출세 = 관직에 나감인데 그게 늦었고

행장유도. 나갈려는 건가? 은둔하는 건가?

회보미방 하니 오라 말라? 하느냐?

관직에 안 나가면 혼란스럽다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결국 안 나간다는 이야기?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훈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재17수>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 해서 자연

현 해서 속세

다르지 않다.

-권호문, 「한거십팔곡」-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견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책을 읽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세상에 나아감.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한거십팔곡

구조	관직에 나감	자연에 은둔	정서
1	충효, 십재황황		
2	공명이 늦음 부급동남, 여공불급		계교 못 이룰까
4	성주	강호 놀자 소락	방향 갈데 몰라
8	출. 치군택민	처. 조월경은 명월군자 즐김 부귀 위기 빈천거	안빈낙도 부귀 바라지 않음
16	행장유도	산지남 수지북	회보미방 왜 나더러 오리말라?
17	성현 가신 길 만고 한가지 현	은	둘다괜춘 결국자연?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수업 때 설명드렸다시피

잘 나가는 엄마의 상황이 아니라

힘들게 장사를 하지만, 장사도 잘 안 되고

은전 = 돈

별리지 않는

엄마의 한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엄마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는 손 시리게 떨었죠. 추우니...

난방도 잘 안 되던 그시절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아마 엄마의 눈물을 생각했겠죠?

-박재삼, 「추억에서」-

주제 : 엄마의 한. 그 시절에 대한 회상.

엄마의 삶의 고단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서 강조

주제 부각

1~2 정답 확률이 87퍼라 했습니다.

1번 선지는 설의법 있는지

2번 선지는 특정대상과 대화 하는지

발췌독 갑시다.

역시 고전시가 설의법은 항상 있고

한 이던가 설의법 보이네요

정답 1번 딱!

보이지죠?

평가원의 설계, 출제 관습을 파악하는 것의 힘!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부급동남. 공부. 성주. 관직에 나가서 임금 섬김

주제.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려 한다.

초반부는 공부해서 관직나가려 합니다만

17수에서는 관직? 자연? 애매하죠? 정답 의심!

물론 이 경우는 18번 보기를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히 하기에 도움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고 지문 먼저 뚫고 보기 보는 것을 권합니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강호 자연 선택한 이유?

그러네요. 부귀는 위기니까.

부가 귀함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반부 갈등. 후반부는 결론! 주제!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주제!

역시 정답은 2번!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잡은 주제와 상통!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유교적 가치관. 전형적 주제.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 연결. 전형적 고전의 주제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보기 연결.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보기 연결!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내용 이해해야죠.

주제. 정보가지 높은 내용. 역시나.

회보미방하면 나가서 일 해야하는데?

늙어서 일 안 하겠다고 한건데?

정답 5번!

잠시 독서 뒷론에 있던 제 작품.

등단 근처도 가지 못하는 배락가의 하찮은 작품 4.

<엄마의 가방>

문득, 수십 년 넘도록 버리지 못했던 엄마의 가방이 떠오른다. 그 시절,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는 행복했을까 생각해 본다. 평범한, 때로는 가난했던 그 집에서 태어난 우리 엄마도 꿈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

그 엄마의 꿈과 젊음과 삶의 대가로 나는 태어났고 자랐다.

단 한 번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엄마는 삶의 무거움에 나를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들여보았던 엄마의 가방은, 그런 엄마의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었다.

https://open.kakao.com/o/gf8G0nYb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어느새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나이도 훌쩍 넘겨,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아무리 살아도 삶은 여전히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엄마는 더 아팠겠지. 그리고 더 무거웠겠지.

항상, 우리 엄마는 그랬다. 자신의 이름과 무게보다.

내 이름에 더 아파했고, 내 무게에 더 무거워했다.

평범한 직업을 구해, 평범한 결혼을 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란 우리 엄마의 기대가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런 삶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 정말 쉽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의미있는 삶,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가 나를 해준 것들에 대한 유일한 보답 같아요.

- 2020년 2월 14일 아침 9시 21분.

- 아픈 몸을 견디며, 교재를, 작품을 쓰느라 날을 새고, 문득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고 아팠을까 싶어서.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절'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그 상황 상상해보자고 했죠?

수업 내용 활용해보시면 더 좋구요!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46페이지 작품 해설 기억 나죠?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바로 정답!

주제가 행복? 아니죠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손 시려웠던

한.

서러움. 고단함. 주제 정서 잡으세요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시'론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모두 46페이지 작품 해석 참고!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은 개념문제

고전 외형물 - 김소월 시

현대시 내재율 - 이상의 시

끝!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3음보? 고전? 외형물!

틀렸쥬!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건 조금 있다가

필요시 발췌독

숫자 정확히 확인하죠!

근데 고전인데 규칙을 위반?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맞죠? 리듬. 운율 형성 요소.

정답이네?! 끝!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주제. 무료한 삶? 고단하다니까...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외형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개념을 내지 않습니다.

명확한 3번 정답 끝.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문항 출제하지 않는 평가원 의도는 수차례 설명드렸어요.

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수능에 왜 내느냐.

그 개념에 집중? 신비평으로 간다.

문학 교육 목표 달성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개념 명확히 하면 감상 능력, 공감 능력이 생기느냐!

우선, 시론1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전시가 + 기타 장르 연결 한 뒤에

다시 한 번 주요 작품들, 지문들에 연결해보겠습니다.

